

# 호랑이 미친 타격의 중심 '100억 사나이'



다시보는 KIA 2017 시즌  
〈4〉 4번 타자 최형우

고향 연고팀 4번 타자로 돌아와 팀 이끌어  
타율 0.342·26홈런·120타점...KBO 출루율상  
기록 없는 성적·성실함으로 '100억 논란' 잠재워  
"이적 첫 해에 우승...올 시즌 내 성적은 100점"

지난겨울 KIA 타이거즈 최형우는 화제의 인물이었다.

FA 시장의 '대어'로 관심을 끌었던 그는 사상 처음으로 100억의 벽을 깨고 고향 팀 유니폼을 입으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최형우와 함께 '100억'은 지난 스포츠 브리그의 핵심 키워드였다.

'100억'을 놓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로 자리매김한 최형우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100억이라는 금액이) 부담은 아니다. 거기에 맞는 활약을 못 할 수도 있고 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 할 것만 하다가 보면 욕을 먹든 칭찬을 먹든 (결과가 나올 것이고) 나중 일이나 열심히 하려고 한다"며 FA 선수로 새 출발을 하는 심경을 밝혔다.

그리고 최형우의 자신감은 KIA 우승의 씨앗이 됐다.

KIA는 올 시즌 역대급 타격을 앞세워 1위 질주를 했다. 그 중심에 바로 '4번 타자' 최형우가 있었다.

전반기의 기세에 미치지 못한 후반기였지만 최형우는 타율 0.342(514타수 176안타), 26홈런, 120타점으로 고향팀에서의 첫 시즌을 보냈다. 0.450의 출루율을 기록하면서 출루율상 수상자로 KBO리그 시상대에도 섰다.

욕심 많은 최형우에게는 아쉬운 성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최형우는 자신의 2017 시즌에 '100점'을 줬다. 후반기 위기를 넘고 새로운 동료들과 우승이라는 큰 목표를 이뤘기 때문이다.

최형우는 "우승하러 왔지만 이렇게 이적 첫해 우승을 해서 좋다. 우승경험이 적어서 다들 마음고생도 하고 생각도 많았을 것인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다"며 자신의 프로 5번째 우승을 말했다.

개인 성적은 물론 그를 중심으로 한 '최형우 효과'가 100억 논란을 지웠다.

올 시즌 KIA는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전무후무할 세계 기록을 만들어냈다. '미친 타격'의 주인공들은 '최형우 효과'를 이야기했다. 타선 중심에 최형우가 버티면서 타격의 시너지 효과가 났다는 것이 KIA 타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였다.

그는 해결사로서 공격만 이끈 건 아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최형우의 프로 정신은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다.

시즌 중반 이명기는 더 열심히 뛰게 된 계기를 말하며 최형우의 이름을 꺼낸 적이

있다.

이명기는 "어디가 부러지거나 찢어지지 않는 한 뭉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잘하는 선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이명기의 이야기대로 최형우는 자신의 자리에 서는 데 소홀함이 없었다. 최형우의 책임감에 오히려 "쉬어가면서 하라"며 코칭스태프가 애를 태웠다. 매 시즌,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최형우는 올 시즌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록으로 인정받았다.

10년 연속 10홈런(10번째), 250홈런(14번째), 5년 연속 150안타(2번째), 1400안타(38번째), 800득점(32번째), 5년 연속 200루타(13번째) 등의 기록을 세웠다.

충분히 특별한 기록이지만 최형우는 기

## ■ 최형우 월별 성적

구분	경기수	타수	타율	득점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	타점	도루	볼넷	사구	삼진
3~4월	26	90	0.367	22	33	14	2	5	21	0	12	2	10
5월	26	94	0.330	16	31	3	0	9	19	0	23	1	13
6월	23	88	0.375	17	33	4	0	4	25	0	19	1	13
7월	21	79	0.380	22	30	6	1	5	24	0	16	2	13
8월	21	72	0.389	11	28	8	0	2	23	0	15	3	16
9월이상	25	91	0.231	10	21	1	0	1	8	0	11	2	17

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대신 꾸준히 해왔다는 부분에 집중한다. 그가 먼 훗날 받고 싶은 평가 역시 화려한 선수가 아닌 "모든 면에서 좋은 능력을 갖춘 꾸준한 선수"다.

고향에 와서 우승팀 '해결사'로 활짝 웃은 최형우의 묵직한 결음은 2018시즌에도 계속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36초대 진입"

이상화·고다이아 빙속 500m 자존심 대결...오늘 2차 월드컵

'36초대를 향해 달려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 금메달을 놓고 치열하게 '스피드 경쟁'을 펼치는 '빙속여제' 이상화(28·스포츠투드)와 고다이아 나오(31·일본)가 이번 시즌 두 번째 자존심 싸움에 나선다.

이상화와 고다이아는 오는 17일부터 사흘 동안 네덜란드 스타방에르에서 열리는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2차 대회에 나선다. 둘은 한국시간으로 17일 오후 11시 20분 500m 1차 레이스를 펼치고, 18일 오후 9시 30분 2차 레이스에 나선다.

이상화와 고다이아는 자타공인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의 최고 라이벌이다.

여자 500m에서는 올림픽 2연패(2010 밴쿠버·2014 소치)에 빛나는 이상화가 최고 스타로 군림했지만 지난 시즌부터 해상같이 등장한 고다이아가 맹추격하고 있다. 이상화가 무릎 부상으로 주춤한 사이 고다이아는 월드컵 시리즈를 금빛으로 장식하며 '평창 금메달 경쟁자'로 자리매김했다.

이상화와 고다이아는 '올림픽 시즌'을 맞아 지난 11~12일 치러진 2017-2018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에서 시즌 첫 대결에 나섰고, 두 차례 레이스를 모두 금메달로 마무리한 고

다이아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

이상화는 월드컵 1차 대회 1차 레이스에서 37초60을 기록한 데 이어 2차 레이스에서는 37초53으로 기록을 단축했다. 고다이아는 1차 레이스에서 37초29로 결승선을 통과했고, 2차 레이스에서는 37초33으로 살짝 기록이 밀렸다.

이상화의 1차 대회 기록은 지난 시즌 4차례 월드컵에서 작성했던 기록을 훨씬 앞서는 좋은 결과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화는 지난 시즌 5차례 레이스에서 두 차례만 37초대 기록을 작성했다. 2차 대회 때 37초93, 3차 대회 때 37초95를 기록했다. 나머지 레이스는 38초대였다.

이번 시즌 무릎 상태가 호전된 상황에서 이상화는 첫 대회부터 지난 시즌 기록을 능가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남은 월드컵 시리즈에서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상화와 고다이아의 공통된 목표는 36초대 진입이다. 500m 세계기록은 이상화가 2013년 11월 미국 솔트레이크에서 작성한 36초36이다.

고다이아는 1차 대회에서 37초29의 기록을 작성해 36초에 근접하는 모습이다. 고다이아는 지난 시즌 월드컵 대회 막판 37초14를 기록해 '마의 36초대'에 근접했고, 시즌 첫 대회부터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 스타 떠나도...KLPGA 인기 여전

전인지·박성현 빠진 자리 이정은·김지현이 메우며

올 입장 관중 27만8000여명...지난해보다 소폭 상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는 2017년 시즌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다.

김효주, 전인지, 박성현 등 중동 원력이 뛰어난 스타급 선수들이 차례로 미국으로 무대를 옮겨 상당한 인기 하락이 우려됐다. 하지만 시즌이 끝나자 이런 우려는 기우로 드러났다.

KLPGA투어 사무국이 집계한 올해 입장 관중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관객을 집계하지 않는 국외 개최 대회를 제외하면 모두 27만8000여명이 입장해 지난해 27만1000여명보다 조금 늘었다.

10개 대회는 입장 관중 1만명을 넘겼고 4개 대회는 2만명을 넘겨 끌어올렸다. KLPGA투어 대회 가운데 가장 많은 관객이 운집하는 한국여자오픈은 3만6542명이 들어차 지난해 3만3293여명을 훌쩍 넘겼다.

작년에는 1만명 이상 동원한 대회가 9개였고 입장 관객 2만명 이상 특급 대회는 3개였다.

KLPGA투어가 우려와 달리 흥행에 차질이 없었던 것은 박성현이라는 흥행 카드가 빠진 공백을 이정은과 김지현이

라는 새로운 스타가 메꾼 덕이라는 분석이다. 시즌 전반기에 3승을 올려담은 김지현과 하반기에 전관왕을 향해 질주한 이정은의 등장은 KLPGA 투어의 흥행 격정을 날렸다.

김해림과 고진영, 오지현 등의 활약도 흥행 열기가 식지 않는 버팀목이 됐다. 또 아마추어 신분으로 두차례 KLPGA 투어 대회 정상에 오른 '무서운 10대' 최혜진(18)의 돌풍도 KLPGA투어에 대한 관심을 북돋웠다.

그러나 취약점도 드러났다. 무엇보다 한국여자오픈을 뺀 메이저대회 흥행 실적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KLPGA 챔피언십은 4800명의 관객만 찾았다. 지난해 3만명의 구름 관객을 모았던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은 1만명을 간신히 넘겼다. 한화올레식과 하이트진로 챔피언십도 갤러리가 줄었다.

한편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은 가장 큰 폭으로 입장객이 늘어난 대회로 나타났다. 작년에 6000명에 불과했던 관객이 올해는 2만6000명이 넘었다. 1년 만에 국내 대회에서 출전한 박성현 효과와 경기장을 서울 근교인 양주시로 옮긴 덕을 봤다.

두산매치플레이 챔피언십도 박인비 가 결승에 진출한 최종일에만 3500명이 출전까지 찾아오는 등 5000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다. /연합뉴스

## U12 전국 유소년 야구 개막

오늘~21일 가평군서...KIA 최형우 2억 기부

초등학교 16개팀·리틀 야구팀 16팀 토너먼트

양준혁 야구재단이 주최하고 최형우(KIA 타이거즈)가 후원하는 '2017 가평군수배 U12(12세 이하)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17~21일 5일간 경기도 가평군에서 개최된다고 재단이 16일 전했다.

가평에 있는 여러 야구장에서 나누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등학교 야구부 16팀, 리틀(동호회·클럽) 야구팀 16팀이 참가해 별도의 토너먼트 진행 후 각 토너먼트별 우승팀을 가린다.

앞서 최형우는 올해 초 유소년 야구 발전기금으로 양준혁 야구재단에 2억원 을 기부했다.

재단의 양준혁 이사장은 "어린이가 참가하는 이 대회는 프로야구의 근간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야구 활성화와 아마추어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평군과 최형우한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연합뉴스

## 오타니 행선지 내년 1월초 윤곽

미·일 선수계약협정 개정안 일주일 내 타결 전망

일본의 야구 전체 오타니 쇼헤이(23·닛폰햄 파이터스)가 어떤 팀의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에 입성할지 궁금한 팬들이라면 좀 더 인내심이 필요할 전망이다.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인 MLB닷컴을 비롯해 현지 언론은 16일 오타니의 행선지가 이르면 내년 1월 초순에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에는 현재 메이저리그 사무국, 메이저리그 선수노조, 일본야구기구가 미국·일본 선수계약 협정 개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최고법률책임자(CLO)인 댄 할렘은 "협상이 조만간, 아마도 일주일 이내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며 "합의안이 나오면 구단주 투표에 부쳐진다. 투표에서 승인을 받으면 개정안이 발효된다"고 전했다.

닛폰햄은 개정안이 발효된 뒤 오타니에 대한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포스팅에서 최고 응찰액을 적어낸 메이저리그 구단이 독점 교섭권을 갖고 30일간 연봉 협상을 한다. /연합뉴스